

##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연인관계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을 매개로\*

이 해 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

안 명 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성인기 연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를 가정한 경로구조모형과 직접효과를 제외한 대안모형을 비교하였다. 온라인으로 표집한 1번 이상의 연인 교체 경험이 있는 2~30대 미혼 성인 남녀 총 260명의 자기보고 자료를 SPSS 21.0와 Mplus 7.0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모형 비교를 통해 최종 모형으로 채택한 대안모형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고,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가지는 시사점도 논의에 포함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연인관계

\* 본 연구는 이해림(2018)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연인관계 내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을 매개로’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안명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Tel : 02-705-8837, E-mail : christine@sogang.ac.kr

연인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이해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상담장면에서 빈번하게 의뢰되는 문제이다. 가깝고 중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면 함께 있어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에게 거짓 자기를 보인다는 미안함과 죄의식을 갖기도 해 소통의 부재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초기 성인기에는 부모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이기에 이성관계 내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실제로 연인관계는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애착 관계이며(Trinkle & Bartholomew, 1997), 다른 대인관계에서보다 연인관계에서의 거절 경험이 더 심한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이어져(Guarnieri, Smorti, & Tani, 2015)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연인관계는 행복감을 높이고(Demir, 2008) 심리적 성숙에도 영향(Barry, Madsen, Nelson, Carroll, & Badger, 2009)을 미치는 반면, 연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낮은 주관적 웰빙(Dush & Amato, 2005)이나 우울(곽현주, 김현주, 2013)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소통을 탐색한 King 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에 대한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갈등하고 억제하는 정도를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이라 정의했다. 이후 관련 연구들은 정서표현양가성이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간에 불일치를 일으켜 연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Mongrain & Vetteese, 2003) 상호 간의 의사소통

이 손상되기 쉽고 관계 만족도를 저해한다고 밝혔다(Ben-Ari & Lavee, 2011). 정서표현양가성은 부부관계 만족도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King, 1993) 전반적으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부정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기에 연인, 친구와 같은 수평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이 개인의 부적응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윤혜지, 현명호, 2018; 이혜민, 허재홍, 오충광, 박원주, 2018). 따라서 정서표현 양상은 부모-자녀 관계 혹은 연인관계 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대인관계 맥락을 감안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Clark & Taraban, 1991; King & Emmons, 1990).

한편 성장 과정 중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연인을 대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가 적절한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하면 자녀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지만(Shaver & Mikulincer, 2007) 불안정한 애착 경험은 정서표현을 지나치게 방어하거나 억제하는 정서조절 기제를 발달시킨다(Mikulincer & Shaver, 2008). 따라서 초기 성인기 연인관계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적 태도가 심한 경우 성장 과정 중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정서를 경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개인의 내적 표상이 성인기 연인관계 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김수경, 2003; Cassidy, 2000)을 고려하면 부모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부정적인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의 매개역할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자녀의 내적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초기경험으로 심리적 통제(변경란, 김은정, 2019; 안명희, 신희수, 2012; 이경희, 홍혜영, 2015; 전혜련, 이지연, 2014; Rudolph & Zimmer-Gembeck, 2014)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는 부모가 자신의 심리적 필요에 의해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조종하여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경계와 발달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통제적인 시도 및 행동으로(Barber, 1996) 인신공격, 자녀의 말이나 감정 무시하기, 죄책감 유발하기, 애정철회의 위협 가하기, 변덕스러운 감정적 행동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자녀의 심리와 정서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시도를 포함한다(안명희, 2010).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체성, 심리적 유능감, 정서적 발달을 방해(Barber & Harmon, 2002)하는 양육 태도로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자녀가 정서나 행동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최소선, 2016). 이처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인 초기 연인관계 내에서의 정서표현양가성에도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검증한 국내외 연구는 없다.

한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조절 어려움을 심화시키거나(김현아, 장혜인, 2016), 혹은 정서조절 결함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Luebbe, Bump, Fussner, & Rulon, 2014) 상반된 보고가 존재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갖는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를 탐색한 국내외 연구 또한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부모

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연인관계에서의 정서표현양가성을 중심으로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연인관계에서의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 내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밝힌다면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기 성인 내담자들과의 상담장면에서 개입의 초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개인의 정체성으로 자리한 내면화된 수치심(이인숙, 최해림, 2005)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를 향한 강렬한 부정적 정서이자 훼손된 자기상을 반영한다. 이는 연인관계 부적응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이인숙, 최해림, 2005) 연인과의 적응적 상호작용이 적고 관계 만족도가 저하된다(Johnson, Nguyen, Anderson, Liu & Vennum, 2015). 부모의 정서적 학대는 자녀로 하여금 자기비난적 생각을 내면화하게 만든다(Glassman, Weierich, Hooley, Deliberto & Nock, 2007). 심리적 통제 역시 일종의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어 부모로부터 높은 심리적 통제를 경험할수록 자기 존재의 가치를 문제시하는 만성적인 수치심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 관련 경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자녀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호연, 장진이, 2017; 전혜련, 이지연, 2014).

손상된 자기 표상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특히 친밀한 상대로부터 거

부를 당할 가능성에 예민할 수 있다. 거절민감성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와 불안, 거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Downey & Feldman, 1996). 이러한 거절민감성 또한 연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성 관계에서 낮은 친밀감을 경험하고(박혜련, 손은정, 2012) 상대의 헌신에 의심초사하며 갈등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Purdie & Downey, 2000). 통제적인 양육(Rowe, Zimmer-Gembeck, Rudolph & Nesdale, 2015)은 거절민감성 발달의 주요한 원인이며, 그 중 심리적 통제(안명희, 2010; Barber, 1996)는 거절민감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빙효은, 2017; Rudolph & Zimmer-Gembeck, 2014).

이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적절한 양육 경험으로 비롯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은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준다(곽지혜, 2016; 김현주, 홍혜영, 2013; 이유정, 2011; 정지혜, 2013). 또한, 자기에 대한 수치심이 높을수록 타인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고(Gross, Gilbert, & Allan, 1994) 거절민감성이 가중된다(황지선, 안명희, 2015).

성인 초기 연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관계의 질을 저해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정서표현양가성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상담장면에서의 효과적인 개입에 유용한 실증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그리고 거절민감성은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확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그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이 각각, 그리고 순차적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양가성에 직접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을 매개로,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순차적 매개로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한 부분매개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양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에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각각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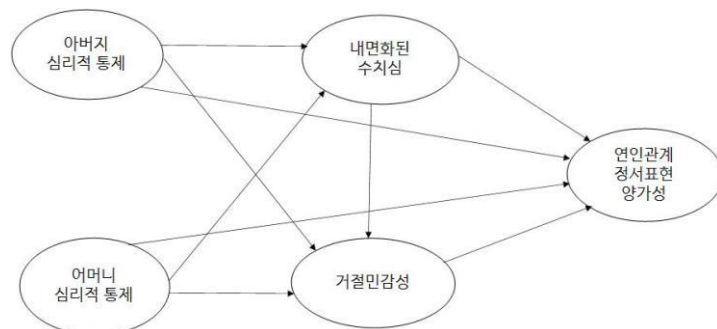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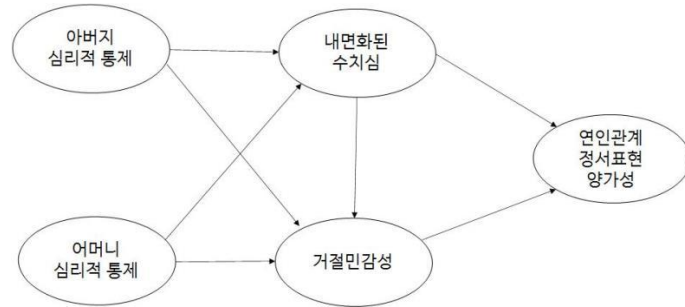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1번 이상의 연인 교체 경험이 있거나 현재 연애 중인 미혼의 20-30대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장 과정 중 가족 형태가 한부모 가족인 40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6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74세

( $SD = 4.74$ )이고 현재 연인과 교체 중인 사람이 116명(44.6%), 연인과 교체 중이 아닌 사람은 144명(55.4%)이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 도구

##### 부모의 심리적 통제

Barber(1996)의 심리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에 Olsen 등(2002)의 2문항을 추가하여 안명희(2010)가 번안한 척도를 신희수(2013)가 대학생에 맞춰 어휘를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각

표 1. 인구학적 변인 (N=260)

		빈도(%)		빈도(%)	
성별	남성	118(45.4)	거주지	서울	85(32.7)
	여성	142(54.6)		경기/인천	80(30.8)
연령	20대	137(52.7)	충청도	강원도	6(2.3)
	30대	123(47.3)		충청도	15(5.8)
학력	고졸	15(5.8)	경상도	경상도	56(21.5)
	대학 재학·졸업	216(83.1)		전라도	17(6.5)
	대학원 재학·졸업	28(10.7)	제주	제주	1(0.4)
	기타	1(0.4)			

6문항으로 이루어진 3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총 18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통제를 심하게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3가지 하위요인은 각각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예: 내 생각과 느낌(감정)을 바꾸려고 하질 때가 있다),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예: 야단치실 때 나의 과거 잘못까지 들춰내실 때가 있다), 애정철회-죄책감 심어주기(예: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보지 않으시려고 피하는 적이 있다)이다.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각각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신뢰도는 .93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 .86,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85, 애정철회-죄책감 심어주기 .7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신뢰도는 .94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 .87,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89, 애정철회-죄책감 심어주기 .78이었다.

#### 내면화된 수치심

Cook(2001)이 고안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반응경향성을 통제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온 자존감 6문항으로 구성된다. 부적절감(예: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공허(예: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자기차별(예: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과 실수불안(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의 총 4가지 하위요인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고 6개의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 대한 높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 하위요인은 각각 부적절감 .91, 공허 .89, 자기차별 .78, 실수불안 .79였다.

#### 거절민감성

Downey, Berenson과 Kang(2006)이 개발한 거절민감성 척도(Adult-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곽지혜(2016)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 요인이며,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진 9개의 상황은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까 두려워하는 거절불안과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수용기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9개 상황에 대한 거절불안 차원과 수용기대 차원을 역채점한 거절기대 차원을 곱한 뒤 그 곱의 합을 9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절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이었다.

#### 정서표현양가성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King과 Emmons(1990)가 고안하고 최해림과 민경환(2007)이 한국어로 번안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곽지혜(2016)가 연인관계 맥락에 맞추어 지시문과 문항의 표현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이고 자기방어 양가성(예: 내 솔직한 정서적 반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과 관계관여 양가성(예: 화나서 말하

고 싶지 않은 기분일 때도 말없이 부루통해 있는 것은 피하려 한다)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시 경험하는 내적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자기방어 양가성이 .89, 관계관여 양가성이 .83이었다.

### 자료 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21.0를 사용하여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을 위하여 변인들의 척도와 왜도 값이 각각 절대값 2와 7을 넘지 않고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그리고 t검증을 실시하여 성별 및 현재 연인 관계 여부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차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Mplus 7.0을 사용하여 본 연구가 가정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 간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잠재변수를 구인하기 위해 지표의 정규성과 연속성, 추정의 안정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항목록을 사용하여 변수당 2-4개의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심리적 통제와 내면화된 수치심은 내용적 근거를 토대로 하위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문항목록을 형성하였다.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은 문항꾸러미가 잠재변수를 같은 수준에서 반영해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일요

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해 각 문항꾸러미의 요인계수가 비슷하도록 문항들을 할당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검정, RMSEA, CFI와 SRMR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chi^2/df$  값이 3 이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만하고, 2 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편이라 본다(우종필, 2012). Hu와 Bentler(1999)에 따르면 CFI지수는 .95 이상일 때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RMSEA는 .05 이하가 매우 근사한 적합도를, .08 이하는 괜찮은 적합도를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2). SRMR의 적합도는 .08 이하면 좋다고 본다(Hu & Bentler, 1999).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모형 적합도 비교를 통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표본에서 10,000번의 복원 추출을 진행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정은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본다(김수영, 2016).

## 결 과

###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r=.593, p<.01$ ), 내면화된 수치심( $r=.430, p<.01$ ), 거절민감성( $r=.367, p<.01$ )과 정서표현양가성( $r=.178, p<.01$ )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내면화된 수치심( $r=.425, p<.01$ ), 거절민감성( $r=.372, p<.01$ ) 및 정서표현양가성

표 2. 연구 범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 간 상관계수 (N=260)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3-4	4	5
1	1														
1-1	.920**	1													
1-2	.921**	.749**	1												
1-3	.949**	.829**	.813**	1											
2	.593**	.602**	.492**	.564**	1										
2-1	.593**	.619**	.504**	.538**	.920**	1									
2-2	.553**	.562**	.461**	.524**	.927**	.770**	1								
2-3	.522**	.516**	.422**	.521**	.951**	.829**	.818**	1							
3	.430**	.412**	.322**	.465**	.425**	.403**	.368**	.418**	1						
3-1	.435**	.403**	.332**	.475**	.408**	.382**	.352**	.405**	.939**	1					
3-2	.408**	.413**	.290**	.436**	.428**	.418**	.374**	.410**	.865**	.739**	1				
3-3	.370**	.371**	.272**	.391**	.361**	.363**	.304**	.348**	.893**	.755**	.771**	1			
3-4	.218**	.193**	.174*	.239**	.236**	.195**	.214**	.246**	.743**	.618**	.477**	.621**	1		
4	.367**	.325**	.339**	.359**	.372**	.323**	.362**	.354**	.485**	.451**	.446**	.456**	.310**	1	
5	.178**	.180**	.142*	.175*	.217**	.184**	.202**	.219**	.329**	.286**	.313**	.293**	.260**	.433**	1
M	2.47	2.34	2.66	2.41	2.37	2.32	2.48	2.31	2.25	2.14	2.15	2.14	2.78	2.78	3.07
SD	0.77	0.77	0.83	0.86	0.78	0.74	0.85	0.92	0.70	0.76	0.88	0.77	0.83	0.85	0.56
왜도	0.25	0.29	0.05	0.35	0.28	0.28	0.13	0.38	0.60	0.65	0.67	0.83	0.39	0.13	-0.46
첨도	-0.42	-0.56	-0.38	-0.28	-0.49	-0.41	-0.60	-0.61	-0.28	-0.37	-0.07	-0.53	-0.47	0.90	0.41

주. 1=아버지 심리적 통제, 1-1=아버지 애정철회-취책감, 1-2=아버지 애정표현제-감정무시, 1-3=아버지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2=어머니 심리적 통제, 2-1=어머니 애정철회-취책감, 2-2=어머니 애정표현제-감정무시, 2-3=어머니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3=내면화된 수치심, 3-1=부적절감, 3-2=공허, 3-3=자기치별, 3-4=실수불안, 4=거절민감성, 5=정서표현양가성

\*  $p < .05$ , \*\*  $p < .01$



( $r=.217, p<.01$ )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절민감성( $r=.485, p<.01$ ) 및 정서표현양가성( $r=.329,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거절민감성은 정서표현양가성( $r=.433,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 결과에 근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높고,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도 높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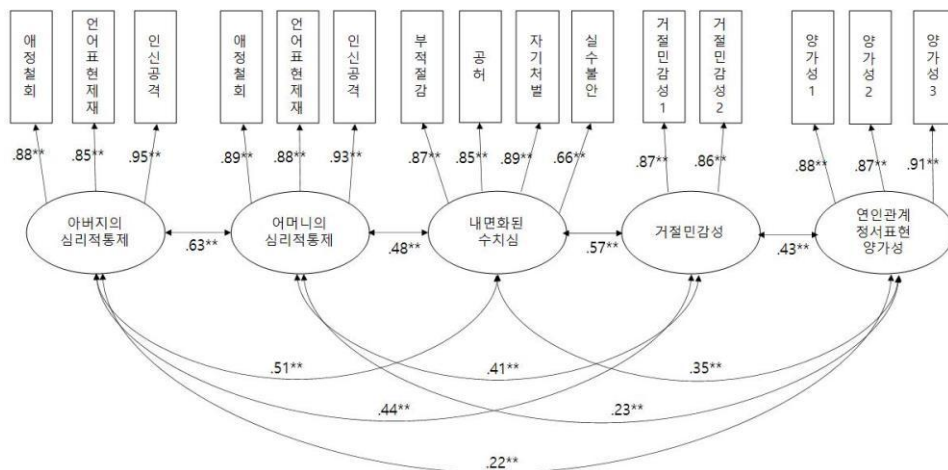
#### 변인들의 평균 차이 검증

남성이 여성보다 연인관계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2.082, p<.05$ ). 현재 연인과 교제 중인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정서표현양가성을 낮게 보고하였고( $t=-3.177, p<.01$ ),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공허는 더 높게 보

고하였다( $t=2.378, p<.05$ ). 그리고 본 연구 대상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심리적 통제가 심하다고 보고했으며( $t=2.237, p<.05$ ), 심리적 통제의 하위변인 중에서도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 $t=3.295, p<.01$ ).

####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각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가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은 그림 3에,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chi^2(df=80)=159.683, p<.01, CFI=.973, RMSEA=.062, SRMR=.033$ ). 그리고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적재치가 0.66~0.95로 균형 있게 할당된 것으로 나타나 15개의 측정변인



주. \*\* $p<.01$

그림 3. 측정모형 (N=260)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N=260)

$\chi^2$	df	$\chi^2/df$	p	CFI	RMSEA	SRMR
159.683	80	2.00	.000	.973	.062	.033

으로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가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직접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을 매개로,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순차적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대안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각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Delta\chi^2$  차이검증을 통해 두 모형 중에서 자료를 잘 설명하

는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chi^2$ 의 차이가  $df(2)=0.775(p>.05)$ 로 유의미하지 않아 간결한 모형인 대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표현양가성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최종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82)=160.458, p<.01, CFI=.974, RMSEA=.061, SRMR=.034$ ).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beta=.320, p<.01$ )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beta=.263, p<.01$ )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절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beta=.439, p<.01$ ) 높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절민감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표 4.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N=260)

	$\chi^2$	df	$\chi^2/df$	p	CFI	RMSEA	SRMR
연구모형	159.683	80	1.99	.000	.973	.062	.033
대안모형	160.458	82	1.96	.000	.974	.061	.034

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N=260)

	B	$\beta$	SE	t
아버지 심리적 통제→내면화된 수치심	0.312	.320**	.096	3.245
어머니 심리적 통제→내면화된 수치심	0.263	.263**	.084	3.125
내면화된 수치심→거절민감성	1.281	.439**	.224	5.722
거절민감성→정서표현양가성	0.116	.422**	.059	4.836

주. \*\* $p<.01$

거절민감성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beta=.422, p<.01$ ) 거절민감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연인관계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심한 갈등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에,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최종 모형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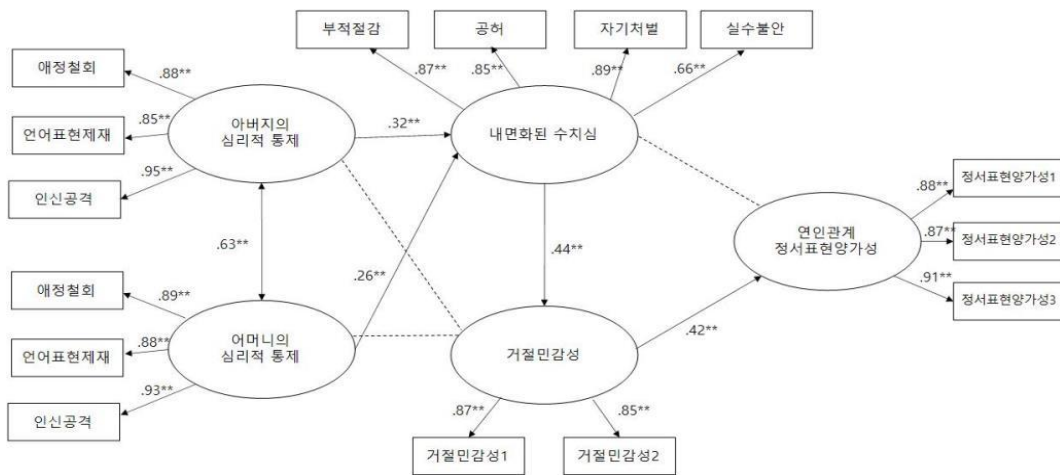
최종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가지는 경로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표현양가성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이 순차적 매개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표현양가성 간의 관계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이 순차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에 각각 개별적 영

표 6. 최종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N=260)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아버지 심리적 통제→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정서표현양가성	.059*	.014	.105
어머니 심리적 통제→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049*	.009	.089

주. \* $p<.05$



주. \*\* $p<.01$

그림 4. 최종 모형 (N=260)

향을 미쳐 정서표현양가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이고 이는 다시 거절민감성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서표현양가성을 심화함을 의미한다. 최종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를 포함한 경로구조모형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연인 교제 경험이 있는 20-30대 미혼 성인 남녀 260명을 대상으로 연인관계에서 드러나는 정서표현양가성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과 연인관계에서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거나 변덕스러운 감정을 보이는 등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정서는 물론 연인관계 행동 양상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을 부적절하고 보잘 것없는 존재로 경험하고, 타인의 거절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높아지며, 연인관계에서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도 이를 망설이고 주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부적절한 양육 경험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안명희, 신희수, 2012; 빙효은, 2017; 전해련, 이지연, 2014; Rowe et al., 2015; Rudolph & Zimmer-Gembeck, 2014; Webb, Heisler, Call,

Chickering & Colbrun., 2007), 그리고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안소연, 2016; 최소선, 2016)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 스스로를 부족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낄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기대인 거절민감성이 높아졌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 간의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던 연구(황지선, 안명희, 2015; 홍진이, 2014)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대해 강한 수치감을 느끼고 타인의 거절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연인 사이에서 정서표현 시 양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선행 연구(곽지혜, 2016; 김현주, 홍혜영, 2013; 이지연, 2008; 정지혜,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 각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 존재에 대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내면화하게 만들고, 이것이 타인의 거절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연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침해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이 내면화된 수치심(장호연, 장진이, 2017; 전해련, 이지연, 2014; Webb et al., 2007)과 거절민감성(빙효은, 2017; Rudolph & Zimmer-Gembeck, 2014)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절민감성으로 이어지는 경로(황지선, 안명희, 2015)에 심리적

통제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안소연, 2016; 최소선, 2016)와 내면화된 수치심(김현주, 홍혜영, 2013)이 직접적으로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여하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 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밝혔다. 태어나 처음 맺는 관계인 부모와의 경험이 성인기 가장 가까운 관계인 연인에게 보이는 정서표현양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자기에 대한 강한 수치심이 거절에 대한 지나친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성인기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보여주는 관계양식이나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저변에는 양육적 박탈감이 촉발하는 자기와 타인, 그리고 자기와 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정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Cassidy, 2000; Shaver & Mikulincer, 2007)에 힘을 실어준다.

중요한 애착 대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확대받는 경험을 반복하면 자기에 대해 비난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이나 심상을 가지기 쉽다(김해랑, 홍혜영, 2017; Fowke, Ross & Ashcroft, 2012; Glassman et al., 2007). 본 연구 결과는 부모 본위로 자녀의 정서를 통제하여 건강한 자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도 일종의 확대적 경험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심상을 야기할 수 있다(변경란, 김은정, 2019; 장호연, 장진이, 2017)는 주장을 지지한다. 부모로부터 경험한 심리적 통제가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이경희, 홍혜영, 2015)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빙효은, 2017)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타인 표상을 갖게 하고, 이 과정에는 훼손된 자기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욕구와 정서가 수용되기보다 조종과 간섭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주도성과 자율성을 학습하지 못해 자신의 역량을 의심하고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험이 누적되면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어딘가 부적절하고 부족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받아주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 거절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는 연인관계에서 상대에게 솔직히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를 망설이거나 지나치게 억누르려고 하는 내적 갈등을 반영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 모두 심리적 통제가 심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한 존재감의 상처, 즉 자기 관련 부정적 사고와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이 높은 이들의 자기감(sense of self)을 반영하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자아존중감 혹은 자아유능감과 같이 타인의 평가에서 비롯되는 자기감을 반영하는 요인들이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과 같은 역기능적인 정서적 의사소통 방식이 연인관계에서 재현되는 불안정한 애착욕구 혹은 애착대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기여 한다는 이론적 가정을 기반으로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에서의 성인애착 양상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정서표현양가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서조절의 양식과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어머니보다 관련성이 적다는 기존 연구(Bariola, Gullone & Hughes, 2011; Chang, Schwartz, Dodge & McBride-Chang., 2003; Luebbe et al., 2014)를 반박하고,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역시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김현아, 장혜인, 2016; 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를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성인기 자녀가 연인관계에서 정서표현을 감동하는 경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 태도 역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장 과정 중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 역시 성인 초기 연인관계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의 결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상반된 보고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연구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성평등 의식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아버지 역시 성숙한 양육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정서적 양육 태도가 성인 자녀의 자기상과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인관계 내 정서적 의사소통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엄격한 양육을 하며(Chang et al., 2003) 아들의 정서조절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Moretti & Craig, 2013) 보고도 있으므로, 특히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아들의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심한 언어적 표현 제재와 감정 무시를 당했다고 보고하였고, 남성들이 여성에 비하여 연인에게 정서 표현을 하는데 더욱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정서적 의사소통 양식의 세대 간 전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있으므로(Chang et al., 2003; Moretti & Craig, 2013; Rogers et al., 2003)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의 수를 늘려서 부-자녀, 모-자녀 각각의 쌍(dyad)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정서표현양가성의 기제를 심도 있게 탐색해 볼 것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인관계 내에서 정서표현 행동을 억제하려는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아직 보수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고(김소정, 2013), 남성

이 여성보다 정서표현을 적게 한다는 연구 결과(장정주, 김정모, 2008; Gorss & John, 2003)가 존재한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상과 관련된 특징들을 지지할수록 정서표현을 덜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견해(Kring & Gordon, 1998)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본 연구에 포함된 젊은 남성들이 연인관계에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면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솔직하게 자기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연인과 교제 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인관계 내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인관계 유무뿐만 아니라 관계 만족도를 포함한 연인관계의 질(quality)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결별을 하는 이유에 정서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탐색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정여주, 두경희, 김창대(2011)에 따르면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연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의 내면이 텅 비었다고 느끼며 부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는 사람들은 감정 혹은 감정표현에 대한 욕구보다는 애착대상을 잃지 않으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아닌지 탐색해보는 것도 연인관계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양가성의 원인 기제를 구체적으로 밝혔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 연인에게 정서표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인

초기 내담자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성인 초기 정서표현양가성 발달에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에 대한 수치심과 타인의 거절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상담 장면에서는 이러한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다뤄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상담자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거절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기대와 불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신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가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어야 정서표현에 대한 내적 갈등을 낮추고 적절하고 기능적인 정서표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취약한 자기 관련 정서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은 부모의 지속적인 거부와 통제로 형성된 자기를 향한 강렬한 부정적 정서이고, 이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성장 과정 중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성인기 이성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찰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성인들은 자신의 정서를 덜 표현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보고(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도 응답이 축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인 상대를 함께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연인 존재의 유무, 교제 기간과 같

은 연애 상태가 연인관계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김진수, 서수균, 2011; 이지연, 정태연, 2007; Feeney, 2007), 연애 유형에 따라 연애경험의 집단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정여주, 정여진, 2013).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연인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인관계 맥락에서의 정서표현양가성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애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설문에 포함하고, 요인별로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한다면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지혜 (2016). 불안애착이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현주, 김현주 (2013). 한국 대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 분석. 청소년학연구, 20(7), 75-98.
- 김소정 (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1), 89-111.
- 김수경 (2003). 대학생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진수,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93-809.
- 김혜량, 홍혜영 (2017).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자기체계손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321-340.
- 김현아, 장혜인 (2016).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253-275.
- 김현주, 홍혜영 (2013). 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181-209.
-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정서표현양가성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아동, 청소년, 성인 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89-207.
-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93-1099.
- 변경란, 김은정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5(1), 91-115.
- 빙효은 (2017).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수 (2013). 지각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대학생의 내면화 증상의 관계: 완벽주의,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명희 (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안소연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윤혜지, 현명호 (2018). 내현적 자기에 특성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 26(4), 332-339.
- 이경희, 홍혜영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 시설환경*, 13(4), 101-114.
- 이유정 (2011).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에,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이지연, 정태연 (2007). 대학생 데이트 커플의 애정표현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15-330.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혜민, 허재홍, 오충광, 박원주 (2018).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9(1), 65-86.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장호연, 장진이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871-891.
- 전혜련, 이지연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2), 5-18.
- 정여주, 두경희, 김창대 (2011). 대학생 연인관계 유형 검사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2(1), 219-241.
- 정여주, 정여진 (2013). 대학생 연인관계 유형에 따른 군집분석과 남녀 비교. *상담학연구*, 14(5), 2925-2943.
- 정지혜 (2013).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소선 (2016).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 성격, 21(4), 71-89.
- 황지선, 안명희 (2015). 불안정 성인애착이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1), 1-20.
- 홍진이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iola, E., Gullone, E., & Hughes, E. K. (2011). Child and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the role of parental emotion regulation and express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2), 198-212.
- Barry, C. M., Madsen, S. D., Nelson, L. J., Carroll, J. S., & Badger, S. (2009).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ies in emerging adulthood: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identity development and achievement adulthood criteria.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6(4), 209-222.
- Ben-Ari, A., & Lavee, Y. (201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imate relationships: a shift from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o dyadic attribut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2), 277-284.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assidy, J.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11-131.
- Chang, L., Schwartz, D., Dodge, K. A.,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98-606.
- Clark, M. S., & Taraban, C. (1991). Reactions to and willingness to express emotion in communal and exchange relationshi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4), 324-33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mir, M. (2008). Sweetheart, you really make me happy: romantic relationships quality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happines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2), 257-277.
- Downey, G., Berenson, K. R., & Kang, J. (2006). Correlates of 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olumbia University*.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ush, C. M. K., & Amato, P. R. (2005). Consequences of relationship status and quality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5), 607-627.
- Feeney, B. C. (2007). The dependency paradox in close relationships: accepting dependence promotes indepen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2), 268-285.
- Fowke, A., Ross, S., & Ashcroft, K. (2012). Childhood maltreatment and internalized shame in adults with a diagnosis of bipolar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9(5), 450-457.
- Glassman, L. H., Weierich, M. R., Hooley, J. M., Deliberto, T. L., & Nock, M. K. (2007). Child maltreatment, non-suicidal self-injury,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 2483-2490.
- Gr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Guarnieri, S., Smorti, M., & Tani, F. (2015).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emerging adulthoo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1(3), 833-847.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hnson, M. D., Nguyen, L., Anderson, J. R., Liu, W., & Vennum, A. (2015). Shame proneness and intimate relations in Mainland China. *Personal Relationships*, 22(2), 335-347.
- King, L. A. (1993).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ov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Personal Relationships*, 10(4), 601-607.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Luebke, A. M., Bump, K. A., Fussner, L. M., & Rulon, K. J. (2014).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s to adolescent anxiety through deficits in emotion regul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5(5), 565-576.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8). Adult attachment and affect regulations. In J. Cassidy & P. R. Shaver (Ed.),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503-531). New York: Guilford Press.
- Mongrain, M., & Vetteu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 Moretti, M. M., & Craig, S. G. (2013). Maternal versus paternal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ffect regulation and risk for depression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37(1), 4-13.
- Olsen, S. F., Yang, C., Craig, H. H., Robinson, C. C., Peixia, W., Nelson, D., Nelson, J., Jin, S., & Wo, J. (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35-2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4), 338-349.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 Rowe, S. L., Zimmer-Gembeck, M. J., Rudolph, J., & Nesdale, D. (2015). A longitudinal study of rejecting and autonomy-restrictive parenting,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oemotional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6) 1107-1118.
- Rudolph, J., & Zimmer-Gembeck, M. J. (2014). Par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indirect association via emotional sensitivity to rejection threat.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6(2), 110-12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7). Adult attachment strategies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446-465). New York: Guilford Press.
- Trinkle, S. J., & Bartholomew, K. (1997). Hierarchi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5), 603-625.
- Webb, M., Heisler, D., Call, S., Chickering, S. A., & Colburn, T. A. (2007). Shame, guilt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ported history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1(11-12), 1143-1153.

원 고 접 수 일 : 2020. 04. 14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0. 02  
게 재 결 정 일 : 2020. 11. 13

##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Hae Rim Lee<sup>1)</sup>**

**Christine Myunghee Ahn<sup>2)</sup>**

<sup>1)</sup>Master's Degree,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EE) among young adults in romantic relationships, this study hypothesized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AEE, and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Participants were 260 unmarried young adults with a history of romantic relationships. Data from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from the SEM indicated that perceived paternal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independently increased internalized shame and led to increased rejection sensitivity which, in turn, resulted in greater AEE. Current findings identified specific and separate pathways of influence from paternal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to internalized shame, rejection sensitivity, and AE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investig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ical control, internalized shame,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romantic relationships, young adults*